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 코너 우드먼

32143654 이지영

 코너 우드먼은 런던 금융가의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수십 억대 연봉자였다. 그런데 파산한 회사의 구조 조정을 맡아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던중 자신이 배운 경제학에 대해 의문이 생기며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업시장이 아닌 전통 시장에서 경제학의 정의를 새롭게 배우고자 하였다.

먼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약 2만 5000파운드를 마련하여 6개월동안 4대륙 15개국을 다니며 자신이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시장으로 뛰어들어 전 세계 상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돈을 벌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 모로코로 떠났다.

모로코에서 카펫 판매는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단에서 거래에 필요한 허가증을 구하는데 며칠을 써버렸고 결국엔 낙타를 구매하지 못했던 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 현지인들과의 협상에서 이기지못해 146만원을 손해본 것, 멕시코에서 서핑보드를 팔려고하다 익사할뻔 한 일, 일본에서 어선을 타고나가 사흘밤낮을 고생하고 겨우 150엔을 번 일 등 그의 도전은 그리 순탄치 못한 일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5만파운드를 벌어오겠다는 목표를 이뤄냈다. 예상 할 수 없던 각종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았다.

첫째, '도전정신'이다. 런던 금융가의 수십 억대의 애널리스트가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굳이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지내던 사람이 그동안 이룬것을 뒤로한채 떠나는 일은 도전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끝까지 실천해나갈 도전정신이 부족한 편이다. 내가 만약 수십억대의 애널리스트였다면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 대답은 NO다. 때문에 현지 시장에서 직접 부딪쳐보려는 그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여유'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팔릴까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긴채 태연한 척, 최대한 현지인들 같은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특히 현지인들과 가격흥정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속으로는 자책해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게 인상깊었다. 나는 이런 여유는 그가 수십억대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나 자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세번째, '포기할줄 아는 마음'이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손해를 보고싶지 않아한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는 최고가에 구입한 말을 손해를 보면서라도 팔던가, 허가증을 받는데 며칠을 소모했어도 끝까지 낙타 구입에 매달리지 않는 점 등 적절히 포기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작은 것을 포기하는것도 무서워서 벌벌떠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몇십 혹은 몇천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래 진행을 포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지막으로 '긍정'이다. 그의 거래에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다. 굳이 왜 어렵다는 가축장사를 하려고 했던건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삼은 여행에서 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아무 정보가 없는 새로운 시장에 정보 수집도 없이 덜컥 도전하는 부분이 아쉬웠다. 특히 다른 문화권의 나라와 거래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진행하려는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통해 어떤 기술이나 조건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작은 거래에서도 배우고, 큰 거래에서도 배우고, 심지어는 실패에서도 배웠다. 첫 거래의 성공이 그의 미래에서의 거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으로 떠나지않고 여행을 계속했다. 세계를 무대로 여행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낯선 시장에서의 불안감, 언어적 장벽, 그 밖에 요소에서 오는 불안감 등을 극복하고 결국엔 이윤을 얻은 그의 도전의 밑바탕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 벌써 졸업은 앞둔 나는 유통이나 무역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번 책을 통해 실제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었다.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나라와의 거래할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저자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또, 내가 하고자하는 분야에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나 사람을 설독하는 리더쉽을 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경영수업을 듣고 있지만 세상은 경영이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같다.